

S-Oil 울산공장 정전 “가동중단”

3월24일 1시10분경부터 1시간 동안 ... 완전 정상화 12-15시간 소요

S-Oil 울산공장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해 1시간 가량 가동이 멈춘 후 재가동됐지만 정상가동까지는 12시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.

3월24일 오후 1시10분경 S-Oil 울산공장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정전사고가 발생한 뒤 1시간여만인 오후 2시10분경 전기가 다시 공급됐다.

사고가 발생하자 S-Oil이 자체 복구에 나섰고 곧바로 전기가 공급됐다.

사고로 인해 종류별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각 공정의 압력이 높아질 것이 우려돼 압력을 빼내는 과정에서 4개의 연소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도 했다.

S-Oil 관계자는 “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점심시간이 끝나고 갑자기 정전이 일어난 뒤 주요 공정이 멈춰섰다”며 “자체 복구작업을 거쳐 1시간여만에 전기공급이 재개됐다”고 말했다.

현재 전기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완전한 기름이나 가스 등은 모두 태운 뒤 정상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정상화까지는 12-15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S-Oil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.

한전은 사고와 관련해 “한전에서 S-Oil로 공급되는 단독 고압선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”며 “S-Oil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”고 말했다.

S-Oil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3/24>